

“사울과 아나니아와 만남”

행9:10-22

한국 최초 여성 1 호박사 고 김활란 박사는 선교사 헬렌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전도 받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7 살 때 침례를 받았고 대학 예비과 과정을 공부하던 중 거듭남의 뜨거운 체험을 하였고, 한국 여성들을 구하겠다는 사명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63 세에 이화여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느즈막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강원도, 충청도 등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쳤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값있게 살았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찬양의 할렐루야를 힘차고 멋있게 불러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부탁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웅장한 환송 음악회가 장례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돌로 만든 작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화려한 경력 대신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히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삶의 지표를 잃어버린 이 세대의 젊은이에게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의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에겐 육체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장애가 많았으나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속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믿는자에게 우연은 없다 모두가 필연이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떤 사건이라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행 9: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무명의 성도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행 22: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설명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사장이냐 직원이나 하는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상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누구냐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시골사람이었고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쓰임 받을 때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비록 작고 순간적인 사건일지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행 9: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행 9: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을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보통 들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면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혹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성이든 환상이든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영적 교제와 환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 장 17 절로 18 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지 않고 예언을 통하지 않고 꿈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꿈을 꿀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할 때 주시는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자지도 않고 깨어 있는데 영화를 보듯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입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든지 음성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묵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 장 25 절로 26 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음에 지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두고나 질병을 두고 안수 하며 기도하는데 나왔다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성령님의 인도신데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 장 13 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주위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특별 계시도 마음에 소원도 받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몰아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장 13 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환경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울데 갈데가 없는데 그 길밖에 갈데가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떠 밀려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리 예비해 놓고 그리로 오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입니다. 고린도전서 2 장 9 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5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말에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더욱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이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기에 인간 본질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죽어 심판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꾀계입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 사명을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내어 놓게 됩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 유업을 이방인 전체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이 미국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버린다. (행 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명령에 내용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야 믿음이 증명 됩니다. 사울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행 9: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행 9: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눈치보지 않고 충성, 즉각적인 충성입니다. 29 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또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핑계로 삼습니다. 헌신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간절히 충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끌려 옵니다,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만을 바라 보며 충성했습니다

성령 받는 사울 (행 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며 사울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 주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전부 다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사울의 사명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 진로와 사명이 확인된 경우를 나눠 주십시오.
3. 성령의 특별 계시로 예언, 꿈, 환상, 묵시, 음성 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성령의 특별 계시가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듣고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받은 축복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